

건축가 교육과 건축대학

조 성 릉

건축가, 조성릉도시건축연구소 소장



21 세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 시점에 대학교육이라는 문제를 바라볼 때 많은 생각이 들지만, 이 글에서는 필자와 관련된 건축교육, 그 중에서도 ‘건축가 교육’ 부분만을 다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생각된다.

과학과 테크놀로지는 이 시대를 좌우하는 커다란 정신체계이다. 고도의 기술과 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내는 사회현상에 대처하면서 심미적인 조형 능력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결과를 유도하는 건축가와 도시계획가, 도시설계 디자이너, 조경가, 건축 관련 엔지니어와 전문가 등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교육은 이러한 문화, 사회, 기술 등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건축에서의 교육은 크게 디자이너를 기르는 건축가 교육과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공학 교육의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분야의 교육 모두 공과대학에 속한 건축공학과(대학에 따라서는 건축학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으나, 이름만 다를 뿐 교육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건축 디자인을 지금처럼 공학의 일부부분으로 간주하기에는 영역과 성격이 너무 다르고, 현재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건축가를 교육하기 힘들다. 아마도 이러한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독일이나 프랑스의 기술학교 제도가 해방 전에 일본을 통하여 들어오고, 고도 경제성장 시대를 거치는 동안 건축 기술자를 양성하는 모호한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 외국에서 건축가 양성 교육은 5~6년제의 건축대학 시스템으로 발전하여 왔고, 4년제 공과대학에서는 건축 엔지니어를 배출하고 있다(다만 일본은 우리와 같은 제도로 운영해 왔지만, 형식을 떠나 그 내용에서는 우리와 사뭇 다르다). 뿐만 아니라 건축대학 내에 도시 역사, 환경, 조경 등의 관련학과를 포함함으로써 건축을 단순히 집을

짓는 행위로만 규정하지는 않는다. 단지 기술만이 아니라 인간사회의 정신적·물리적 요구를 이해하며, 과학과 테크놀로지로 분석하고, 심미적·정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건축가를 양성하려면 특별한 기초 위에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건축가를 교육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현재의 공학부에서 독립하여 별도의 건축디자인 과정(이미 몇 대학에서 건축대학원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을 몇몇 대학(현재의 인력수급 사정을 감안한다면 전체의 10분의 1 정도인 4~5개 대학)이 개설하는 방법을 우선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4년간의 학부와 2년의 석사과정으로 구성되고, 디자인 과목은 설계경력이 충분하고 이 사회에서 실무로 활동하는 건축가가 맡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임상교수를 활용하는 의과대학, 그리고 음악원, 영상원 등에서 연주자나 연출자를 교수로 임용하는 것과 같은 백락이다.

건축과가 공과대학으로부터 분리된다면 공학과는 전문 엔지니어를 양성할 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렇게 고유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바람직한 인재 양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건축과가 독립할 경우에도, 지금처럼 자연계로 분류되고 있는 입시전형 방법으로 신입생의 자질을 평가하기는 불가능하다. 가르치는 일보다 숨어있는 자질을 발견해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보면, 건축대학은 독자적인 선발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실무 건축가가 디자인 교육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교수당 학생수가 선진국에 비하여 배 이상 되고 직접 학생과 일 대 일로 지도하는 시간이 모자란다면, 형식적인 건축대학 시스템만으로 바람직한 디자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건축가의 소양을 기르기 위하여서는 역사, 이론, 비평, 공학, 플래닝 외에도 디자인, 철학, 미학, 경제학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교과를 건축디자인(설계)으로 통합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다양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대응하려면,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추가되어야 할지 모른다. 이러한 시스템을 공과대학 체제에서 수용하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가.

세계화, 국제화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외국 건축가들도 우리나라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우리의 건축도 세계 속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생산 시스템으로서의 산업활동도 중요하지만, 문화로서의 한국 건축을 이루어 나갈 전문집단의 양성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건축가 교육 시스템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조성룡/인하대학교 공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조성룡도시건축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서울건축학교 교장, '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사무국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공저로 『21세기엔 이런 집에 살고 싶다』, 『디자인사전』, 『4.3 GROUP』 등이 있다.